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Employment of the Unemployed Disabled

강봉석*, 엄동문
B. S. Gang, D. M. Yeum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실업기간에 따른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한 모델이 검증되었으며, 장애인의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률이 높아지며,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근로외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analysis, using data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rom the first to fifth yea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olicy suggestion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analyzing important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the unemployed disabled according to the unemployment period.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 model that considered all the sociodemographic, obstructive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was verified; the higher subjective SES of the disabled, the higher employment rate of the unemployed disabled; compared to the severely disabled, the slightly disabled had more advantages for employment; and relatively the lower unearned income, the higher employment rate. This study sug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Keyword : employment, unemployed disabled, survival analysis

1. 서론

장애인에게 취업은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립적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취업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장애인의 취업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상 차별금지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활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 인구는 272만6천 명으로 인구 100명당 5.59명으로 추정되며, 장애인들은 과거에 비해 일상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을 덜 느끼고 있었지만 취업할 때(35.8%) 가장 높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구의 취업률은 전체 국민의 취업률 60.9%에 한참 못미치는 36.6%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5천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접 수 일 : 2015.04.28

심사완료일 : 2015.05.18

게재확정일 : 2015.05.18

* 강봉석 : 한국국제대학교 박사수료

ecu9907@nate.com (주저자)

엄동문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ksltv@hanmail.net (교신저자)

415만2천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67개월에 불과하며, 실업 장애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1년 미만 일한 경우가 44.8%에 이를 정도로 장애인들이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놓여 있다[2]. 즉,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업기간을 반영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3]-[6]), 장애 유형([7]-[9])과 성별([10]-[12])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나 실직이후 재진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거의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 노동관련요인, 장애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생존분석을 적용하여 실업기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패널 조사의 1차부터 5차년도 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주관적 소속계층 등과 같은 기초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Palen과 Fahey은 연령과 학력 수준이 실업과 재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3], Benedict와 Vanderhart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취업 확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14]. Mazerolle와 Singh도 성별과 학력이 취업에 유의미한 변수라고 분석하였

으며[15], Crisp는 75개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연령, 교육수준, 인종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였다[16]. 국내에서도 김교성과 유만희는 연령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17], 강철희 등은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 학력과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8]. 김미희 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가 유의미하게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9], 정성미는 여성의 재취업 요인을 분석하면서 연령, 자녀, 혼인상태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그리고 가구소득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5][21]-[23]).

2.2 장애요인

장애요인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병여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등과 같은 변수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Crisp는 메타분석연구에서 장애정도가 취업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6], Smith는 장애 그 자체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정도가 취업유무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였다[24]. 국내에서도 정병오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요인 분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 일상생활 도움 정도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김성희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병여부, 일상생활 도움 정도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6]. 그러므로 장애요인에서 장애정도, 만성질병여부,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3 사회환경요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요인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결혼만족도, 고용제도, 사회적 자본 등이 있다. 사회적지지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지만[25], 사회적지지는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생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서 심리적인 안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16][26])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 또한, Potts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 취업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27]. 그리고 오세란은 가족관계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5]. 한편, 장애인이 아닌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분석한 김교성과 유만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부, 직업훈련 경험 여부,

법정퇴직금수령 여부 등을 고용제도 관련 변수로 선정하였다[17]. 또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6][21]).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제1차 년도부터 제5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제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17명을 선정하고, 1차 년도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5명을 제외한 21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로서 취업은 1, 실업은 0으로 코딩하였다. 실업기간은 시간의 변수로 하였고, 중도절단은 2차년도부터 미응답자로 하였다.

3.2.2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요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 패널에서 적용가능한 성별(남성=1, 여성=0), 연령(생물학적이)을 선택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주관적 SES(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SES는 하층(1), 중하층(2), 중상층(3)으로 구분하였다.

(2) 장애요인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이므로 장애요인을 포함하였다. 변수는 선행연구에 의해서 장애정도와 만성질병여부를 선정하였으며,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이동의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정도는 중증(1)과 경증(0)으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병여부는 현재 만성질병을 가졌는지(1)와 그렇지 않은지(0)로 구분하였다. 이동의 어려움의 경우 총 질문문항이 8가지인데 1~7까지는 어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느끼는가하는 문항으로 이를 “이동의 어려움 있음(1)”으로 8의 경우 특별히 없음으로 되었기에 “없음(0)”

로 코딩하였다.

(3) 사회환경요인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사회환경요인 중에서 고용관련 변수로 고용서비스 경험여부를 선정하였으며,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소득은 근로외 소득을 선정하였으며, 가족관계와 결혼만족도는 일상생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고용서비스 경험여부는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였으며, 근로외 소득은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로그변환을 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1), 보통(2), 만족(3)으로 코딩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각각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7.1%, 여자가 22.9%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최소 19세에서 최대 63세이며 평균연령은 46.11세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SES)에서 하층이 69.3%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하층 25.1%, 중상층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경증(58.7%)이 중증(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병여부는 만성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63.7%)이 가진 사람(3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어려움은 이동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47.5%)보다 느끼지 않는 사람(52.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서비스 경험여부는 고용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69.8%)이 경험해본 사람(30.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n근로 외 소득은 최소 2.56, 최대 10.56으로 평균소득은 6.04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

는 보통(55.3%)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불만족(25.7%), 만족(19.0%)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취업(36.9%)보다 실업(63.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었으며, 평균 실업기간은 3.35년으로 분석되었다.

표 1. 기술통계분석 결과 명(%)

문항	범주	빈도 (%)	문항	범주	빈도 (%)
성별	남자	138 (77.1)	장애정도	경증	105 (58.7)
	여자	41 (22.9)		중증	74 (41.3)
주관적 SES	하층	124 (69.3)	일상생활 만족도	불만족	46 (25.7)
	중하층	45 (25.1)		보통	99 (55.3)
	중상층	10 (5.6)		만족	34 (19.0)
만성질병 여부	아니오	114 (63.7)	이동의 어려움	없음	94 (52.5)
	예	65 (36.3)		있음	85 (47.5)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없음	125 (69.8)	취업여부	실업	113 (63.1)
	있음	54 (30.2)		취업	66 (36.9)
실업기간	최소:1, 최대:5 평균: 3.35, 표준편차: 1.75				
연령	최소:19, 최대: 63 평균: 46.11, 표준편차: 11.64				
ln근로 외 소득(만원)	최소: 2.56, 최대:10.56 평균: 6.04 표준편차:1.24				

4.2 콕스비례위험 모형분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콕스비례위험 모형분석은 <표 2>와 같다.

콕스비례위험 모형분석은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요인(모델1), 장애요인(모델2), 사회환경요인(모델3)으로 나누어 위계적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요인만을 고려한 모델1의 경우, 자유도 3에서 X²값이 8.005로 모델이 적합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관적 SES가 유의미하게(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구사회학적요인에서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SES의 위험률비(hazard ratio=Exp(B))는 1.866으로 주관적 SES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비가 1.866배로 증가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취업영향요인에 대한 콕스비례위험모형분석 결과

변수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	p	Exp(B)	B	p	Exp(B)	B	p	Exp(B)	
인구사회학적요인	성별	.017	.972	1.017	.098	.845	1.103	.265	.625	1.304
	연령	.016	.423	1.016	.000	.995	1.000	.001	.950	1.001
	주관적 SES	.624	.017	1.866	.747	.009	2.111	1.129	.002	3.092
장애요인	장애정도				-.730	.079	.482	-.807	.076	.446
	만성질병 여부				.441	.289	1.554	.685	.111	1.983
	이동의 어려움				-.321	.395	.725	-.355	.364	.701
사회환경요인	고용서비스 경험						-.244	.593	.783	
	ln근로 외 소득						-.417	.014	.659	
	일상생활 만족도						-.064	.845	.938	
			-2 Log 우도: 262.488 X2(df):8.005 (3) p:0.046				-2 Log 우도: 257.823 X2(df):12.641 (6) p:0.049			
						-2 Log 우도: 251.384 X2(df):18.704 (9) p:0.028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장애요인을 고려한 모델 2의 경우, 자유도 6에서 X²값이 12.641로 모델이 적합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관적 SES가 유의미하게(P<0.05)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도가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델1과 같이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SES의 위험률비는 2.111로 주관적 SES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비가 2.111배 증가 하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위험률비가 0.482배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3의 경우, 자유도 9에서 X²값이 18.704로 모델이 적합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관적 SES와 ln근로 외 소득이 유의미하게(P<0.05)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도는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델1,2와 같이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ln근로 외 소득이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SES의 위험률은 3.092로 주관적 SES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이 3.092배 증가하며, ln근로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이 0.659배 감소하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위험률이 0.446배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1, 2, 3을 비교해보면, 모델2의 경우 주관적 SES가 유의수준 0.05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도가 낮은 유의수준 0.1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델1보다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3의 경우는 모델2보다 ln근로소득이 유의수준 0.05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대한 영향정도를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3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고자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부터 5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기간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의 심리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제활동 및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고용제도가 장애정도가 경미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로의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 및 생활안정이 매우 낮아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주관적SES를 높이기 위한 취업활성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가진다면 취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고용제도가 장애정도가 경미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고용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고용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취업결정에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근로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5][8])와 일치되는 것으로, 소득보장을 받아야할 장애인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부 변수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종단자료를 이용해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영향요인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자 사건사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 [1] 남정휘, 강민수, “장애인의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4호, pp.27-49. 2014.
- [2]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2.
- [3] 조홍중, 전이상,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4권 제4호, pp.379-402. 2003.
- [4] 류정진, 나운환, “직업재활프로그램과 노동수요가 장애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제10권 제1호, pp.1-35. 2006.
- [5] 오세란,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4권, pp.255-275. 2008.
- [6] 김성희,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0.
- [7] 임효순, 이홍직, “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19권 제3호, pp.27-50. 2009.
- [8] 임중호, 최경일,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제13권 제3호, pp.1-18. 2009.
- [9] 신현욱,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이용한 지적장애인 취업결정요인 분석 연구”, 장애와고용, 제21권 제2호, pp.119-152. 2011.
- [10] 박철민, “장애인의 취업촉진 영향요인 분석: 부

산광역시 동래구지역 지체장애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pp. 189-214. 2001.

[11] 백은령, 오혜경, 전동일,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7권 제 1호, pp.223-248. 2007.

[12] 정병오,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제20권 제2호, pp. 143-174. 2010.

[13] Palen, J. J. & Fahey, F. J.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success: An analysis of studebaker shutdow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21 no. 2, pp.234-250. 1968.

[14] Benedict, M. E. & Vanderhart, P. “Reemployment Differences among Dislocated and Other Worker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6, pp. 1-10. 1997.

[15] Mazerolle, M. J. & Singh. G.. “Economic and social correlates of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63, no. 6, pp. 717-730. 2004.

[16] Crisp R. “Key factors related to vocational outcome: Trends for six disability group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 71, no. 4, pp. 30-37. 2005.

[17] 김교성, 유만희, “서울시 장기실업자의 실태와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 2호. pp.83-108. 2000.

[18] 강철희 · 이홍직 · 홍현미라,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223-249. 2005.

[19] 김미희, 탁진국, 한태영, 한영식, 유태용, “중·장년층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의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4호, pp.537-557. 2007.

[20] 정성미, “여성 비정규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관계”, 노동리뷰, 제8권, pp.59-69. 2006.

[21] 임종호, “뇌성마비인의 고용 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 2호, pp.311-336. 2006.

[22] 석말숙, “임금근로 장애인의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1권, pp.243-276. 2009.

[23] Kennedy, J. & Olney, M. F. “Factors associated with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SSDI beneficiar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 72, no. 4, pp.24-30. 2006.

[24] Smith. D. L.. “The Relationship of Type of Disability and Employm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 73, no. 2, pp.32-40. 2007.

[25] McShane, S. and Karp, J., “Employment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38, no. 1, pp.27-40. 1993.

[26] Jensen, M,v Tumer, J., and Romano, J., “Changes in beliefs, catastrophizing, and coping are associated with improvement in multidisciplinary pain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69, no. 4, pp.655-662. 2001.

[27] Potts, B., “Disability and employm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Rehabilitation vol. 71, no. 3, pp. 20-25. 2005



강 봉 석

2014년 8월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2015년 1월 - 현재 진주시 장애인복지센터 근무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염 동 문

1999년 7월 - 2003년 2월 경남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장
2003년 -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연구방법론, 장애인정보화